



[별지 제33호 서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306호(서초동, 정곡빌딩서관)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TEL : 591-3440
FAX : 591-3441

등부 2026년 제394호

인 증 서

2026년도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임시총회 의사록



● 회의일시

2026년 3월 12일 오후 7시 00부터 오후 9시 05분까지

● 회의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하자센터 본관 2층 소강당,
온라인 ZOOM 실시간 회의

● 참석자

총회 성원 수 199명 중 참석 161명으로 과반인 100명을 넘겨 성원이 됨

● 의제

- [의안 제1호] 불법 위탁업체와의 거래 종료 및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
- [의안 제2호] 정관 개정의 건
- [의안 제3호] 임원 징계의 건

*안건명은 소집 요구 받은 그대로임

● 회의내용

1. 의장 인사

의장 전진경이 개회를 알리며 온라인 임시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및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시청하는 내빈에게 인사말을 전하다. 본 임시총회는 회원 57인의 요구로

소집되었음을 알리다.

2. 성원 보고

의장 전진경이 2026년 3월 12일 기준, 총회 성원 수 199명 중 161명의 대의원이 참석하여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다.



3. 개회 선언

의장 전진경이 위 참석자와 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4. 전차 회의록 낭독

사무처장 김현지가 전차회의록을 낭독하다.

5. 의사일정 보고

사무처장 김현지가 의사일정을 보고하다.

의장 전진경이 의사일정 보고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고, 대의원 최경숙 동의, 대의원 하미정 재청으로 의사일정을 채택하다.

6. 의사록 서기와 서명날인 회원의 선임

의장 전진경이 총회의 의사록 서기로 활동가 신주운을 지명하고, 서명날인 임원으로 이사 박지영, 이사 이은애를 지명하다.

의장 전진경이 의사록 서기와 서명날인 임원 선임을 위해 일괄 동의와 재청을 요청하고, 대의원 하미정 동의, 대의원 고현선 재청으로 승인 선임하다.

7. 의결 안건 (제1호, 제2호)

제1호 의안 불법 위탁업체와의 거래 종료 및 특별위원회 설치의 건을 대의원 고현선이 설명하다.

제2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을 대의원 고현선이 설명하다.

제3호 의안 임원 징계의 건을 대의원 고현선이 설명하다.

제안자측에 이어 의장 전진경, 활동가 김태형, 활동가 이선영이 제1호, 제2호 의안에 대하여 상대측으로서 설명하다.



8. 질의응답

의장 전진경이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시간을 확인하고 질의방법에 대해 설명하다.

- 대의원 윤정란: 김태형 활동가께서 오늘까지만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셨다. 짧게 공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꼼꼼하게 보고싶고 시간이 하루만 있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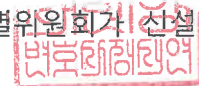
- 활동가 김태형: 현재 그 사이트는 개발하면서 1층 구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층은 사용하지 않지만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봉사자님과 활동가들이 산책 등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쓰는 것으로서 외부에서 쓰거나 수정하면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어서 총회에 소개해 드리려고 보여드린 것입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캡처화면이나 매뉴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정에 로그인하여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 대의원 윤정란: 메시지로 전달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 활동가 김태형: 자세히 설명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분히 보셔도 됩니다.

- 대의원 고현선: 절차적 측면에 대해서 사실관계 틀린 것이 있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정관 제25조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0번 조항에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구한 사항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하면 기구 설립이 가능합니다. 정관상 기재된 특별위원회는 현재 동물복지를 훼손하고 있는 이사회가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된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한 것입니다. 이

사회가 전면 배제되지 않고 논의될 수 있도록 이사회 추천인을 동물복지특별위원회에 포함시켰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탁업체에 맡겨진 동물들의 환경도 문제지만 홍보가 전혀 되지 않는 점도 더욱 문제입니다. 설명에서 스스로 말씀하시길 친화적인 개체가 위탁처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개체에 대한 입양홍보는 전혀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이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카라지회가 보레 입양을 알리기 전에 위탁업체 개체들에 대해서 전혀 홍보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20시간 켄넬링에 관해서도 설채현 수의사도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고 의견을 정확히 밝힌 바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 모든 동물복지에 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포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책임자들과 독립된 동물복지특별위원회가 신설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전진경: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어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정관의 기타 중요한 사항은 지금 현 정관에 내용에 없는 어떤 부분을 포섭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0일 보통재산이었지만 더숨센터 매각을 이사회 의결 사항인데 왜 총회 의결로 올렸나라는 감사님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기타 중요사항으로 올릴 수가 없는 이유는 (정관에) 전문위원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충돌하고 전문위원회는 이사회 의결로 되는 것으로 됩니다. 33조 전문위원회 규정에 대표 이사가 위원장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제안한 건은 그렇지 않아요. 때문에 정관 개정안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표결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 필요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장의 필요성이 있고 전문위원회를 의결했지만 이 역시 어떤 안건으로서의 요건 미비했음에도 표결하되 정관과 충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치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 드린 것과 아무것도 상충되지 않습니다.
- 의장 전진경: 설채현 수의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 드리면 임미애 의원실에서 농식품부에 질문한 질문이 동물을 20시간 켄넬에 감금하면 동물학대인가요?가 질문이었습니다. 설채현 수의사님에게도 질문지가 그렇게 갔다면 또는 제가 그 질문을 받았어도 똑같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카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켄넬링은 동물을 20시간 켄넬에 가두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지로 통쳐질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루틴이고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을 넣고 있고 현재 야간 수면시간 동안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7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동물 돌봄 현장에서 완벽이라는 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기 위하는 거고요. 표준적인 기준을 봤을 때 동물들 행동 요구를 제한한다거나 고통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굉장히 여러번 민원을 넣으셨지만 결국은 저희 아무 문제 없는 걸로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은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답변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방향성, 동물을 감금하는 것, 예를 들어 켄넬에 안들어가려는 개는 5분 안에 못넣어요. 죽어도 안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잘 아시잖습니까. 그리고 켄넬 적응 안되는 개를 켄넬에 넣어둘 수 있습니까? 파괴행동 하고 짖고 난리치고 당장에 뛰어나오죠. 그게 감금입니다. 카라는 그런 감금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 안건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의원 성유경: 주신 안건들이 임시총회가 열린 것도 안건뿐만 아니라 여러 이슈가 발생되었을 때 카라 측에서 이걸 공개하고 자료 제공을 하고 회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아도 됐을 거라고 생각 듭니다. 그 구조에서 불법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쪽(위탁처)에 42마리를 넣어둘 수밖에 없었다 하시는데 거기에 4년 넘게 방치하시면서 어디에 있는지도 가르쳐주지 않으셔서 그걸 걱정하는 회원들이 방문을 했었을 때 이걸 경찰에 신고하시고 그게 불법인지 몰랐다고 답변하시지만 그게 불법인지 모른 것도 책임 소재를 묻자고 하면 대표님의 책임일 수밖에 없을 텐데 4년 넘게 그 자리에 두시고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하시고 지금 불법인지도 몰랐다고 답변하셨던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창구가 총회마저도 지금 다른 단체에 후원하고 있지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줌으로 계속 총회를 여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총회를 이런 식으로 하시고 질문 답변을 하시는데도 일방적으로 피티 파일 사용하면서 정보를 일방적으로 주시고 마무리하시는데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단체가 운영되는 것은 회원들이 중심이고 회원 후원금 내면서 아이들을 잘 보살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마음으로 지금 여태까지 온 건데 지금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건 우린 잘하고 있었고 뭐 잘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걸 확인하고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건물 매각의 건도 마찬가지로 또 팩트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말밖에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옮기고 나서 어디에 있는지 언론에 나고 나서 (알게 되었어요).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SNS도 단혔고 홈페이지도 소통할 수 없고 전화도 받지 않고 이것을 계속 은폐하시려는 걸로밖에 볼 수 없는 이유를 자꾸 제공하고 계시거든요. 첫째, 오프라인으로 총회 하실 예정이 전혀 없으십니까? 그리고 홈페이지가 됐건 SNS가 됐건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오픈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3년 동안 10억을 쓰셨다는데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자료도 공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회의 꼭 다시 재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도 취소하셨고 공사 때문에 간담회 못할 일 전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 의장 전진경: 네 오프라인에서 뵙는 것을 꼭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모든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만나 눈으로 보시면 많은 오해가 풀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위탁처에 4년 있었다는 부분, 마음 아픈데요. 그 동물들이 더봄이나 다른 곳으로 입양을 가거나 순환되지 못하는 사정은 아까 말씀 드렸고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에서 대형견, 혼종, 진도, 도사 등 이런 개들은 1년에 큰 동물단체들도 몇 마리 입양 보내기가 힘든게 사실입니다. 아이들에 대해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만 능력이 못미친 부분이 있었던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너무 입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치가 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해당 위탁처는 다른 곳에 인허가 추진을 하면서 가게 됐는데 그곳이 농지여서 양성화를 못하신 곳이라 했는데 그 부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곳이 위탁업 등록이 안되어 있는 곳이라는 보고를 못받았던 부분이고 챙겼어야 했는데 못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입양 홍보 말씀을 하시는데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입양홍보를 해야 하는 분들이 지금 그 업무를 못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실 때도 위탁처의 동물들 입양홍보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동물 입양을 보내려면 곁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돌봄이나 치료 등을 해서 완벽한 상태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위탁처 동물들도 입양이 손길이 필요한 건 맞지만 어떤 효능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동물을 빨리 입양 보내고 위탁동물들을 (더봄 센터로) 빨리 데려와야 하는데 힘이 못 미친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원 소통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 여러 가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돌봄을 진행하고 오후에 자기 업무하고, 한사람이 3역을 하는 상황이라서 힘이 사실 못미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오프라인 소통 강화할 거고요. 간담회를 꼭 모시고 싶었는데 레미콘 공사가 늦어지면서 공사하는 동안 개들을 바깥(테라스)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서 청소하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봉사자님들하고 아이들이 만나보고 이런 것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SNS 댓글은 관련없는 내용들이 많이 달리는데 그 또한 저희가 관리자가 부족해서 지금 한시적으로 이렇게 된 거고 복구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의원 김정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는 대의원 김정빈이고 카라 이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언권을 요청드린 건 이번 정관 개정의 건에 대해서 이사회 1인의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사회에서 임원에 대한 선출권을 박탈하는 어떤 안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이 회원들이 갖고 계시는 이사회 이사들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아서 올라왔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직의 구조상 이사회의 기본 기능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사회 내에 보고되는 자료를 통해서 대표이사가 의사결정하는 것과 집행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끝없는 질의와 토론 그리고 반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회원들에게 다 동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도 주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본연 중에 이사회 추천권, 이사회가 갖고 있는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원들의 영향이 아니라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규율 측면에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국민이 국회의원이 되고 모든 국민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에 있는 의사결정자들과 많은 정책에 대해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바꿀 수 있고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카라는 과거에 500명, 1000명 회원이 있던 단체가 아닙니다. 이미 만명이 훨씬 넘었고 앞으로 이 투자가 계속 증가되는 과정 중에 모든 회원이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발언권을 갖는 방식으로 사실 카라가 더 나은 조직의 운영체계를 갖는 게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운영 체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금 카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갈등의 봉합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관 개정에서 회원들이 이사를 선출하고 이사회의 어떤 의사결정권을 뺏는 것은 카라가 더 나은 카라, 더 거대하고 단단한 카라가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 이사의 한명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 대의원 이세은: 대의원 선출과정에서 대의원을 뽑는 과정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선출 과정 문제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선출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사회 선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것이며 누구의 기준으로 선택 의원이 선출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 의장 전진경: 대의원이 아니고 임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 대의원 이세은: 전체적인 기준이요. 대의원부터 임원, 이사회 전부 다요. 왜냐하면 대의원이었다가 대의원이 되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의장 전진경: 네. 대의원 내규가 변경되면서 대의원 기준이 바뀐 부분이라 그렇게 설명 말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임원, 사실 저희 카라 임원들이 무급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죄송하지만 이제 올해부터 그걸 개선해야 하는데 헌신을 요구드리면서 회의비 같은 것도 없고 (회의)오시면 주차비도 먼저 내시고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데 전혀 없어요. 기준을 말씀드리면 동물보호, 복지와 관련한 카라의 정관의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영역에서 자문을 주시거나 어떤 외부와의 연결 역할을 해주시거나 또는 지평을 확장해 주시거나 이럴 수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또는 평판 수집을 해서 임원으로 선출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모호한 기준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 요인이 됐던 것 같은데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되어 왔던 부분이지만 빠진 고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원들의 임원 추천권. 그와 관련해서는 기준을 마련해서 추천하실 수 있도록 이사회 안건 심의를 하여 총회에 부의하는 방식으로 절차적 미비를 보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선출 기준, 평가 기준은 기준지가 있는 건 아니고 동물보호에 대한 기여, 시민사회단체에서의 경험이나 기여, 다른 조직에서의 이사로서의 운영 경험 등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안건으로 동물보호나 생명 사랑에 대한 그분들의 평소 실천이라던가 신념 철학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정관과 관련하여 절차적인 미비나 이런 것을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간이 너무 늦어진 것 같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호, 2호, 3호에 대한 제안, 1호, 2호, 3호 안건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제3호 임원 해임건까지 한꺼번에 진행되니 대의원들께서 자리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설명을 드렸지만 전자 투표는 반드시 투표 시점에 로그인 접속하고 계셔야 됩니다. 미리 나가셨다가 투표하시면 무효표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의안 제3호는 대표이사인 저에 대한 해임안입니다. 이번 안건부터는 박지영 이사님께서 의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9. 의결 안건 (제3호)

- 의장 박지영: 안녕하세요. 의장을 맡은 카라 이사 박지영입니다. 의안 제3호 제안 자측 설명을 이미 앞서 1, 2호에 이어서 들었습니다. 그 설명을 들었으니 이번에는 당사자인 전진경 대표이사 소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0분으로 한정하겠습니다.
- 대표이사 전진경: 네 PPT 올려주세요. 드릴 말씀은 많은데 만물 카라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만물 전진경설인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는 저로다 귀결이 되더라고요. 많이 힘들기도 한데 일단 설명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총회 안건에 대한 소명, 노동조합과 조직 개편, 그리고 회계부정, 동물폭행, 여론몰이 그리고 동물방치감금. 과거 소위 비대위 등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저에 대한 어떤 해임안이 올라오게 된 거 같아 개요를 설명 드리고 그간의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임시총회는 제가 정관을 위배했다. 그러니 해임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안건이 올라와 있고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관 제14조 1항, 임원이 징계를 받는 사유의 A항.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과 관련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

다. 그리고 B항 단체의 정관 제 규정 및 각종 회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B는 엄연한 사실관계가 있는 권리와 책임의 또는 법적인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부 다를 이제 제 잘못이라고 지금 해 주셨죠. 장기간 위탁 방치한 사실이 없습니다. 구조 위탁동물 80%는 전부 순환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아니면 입양을 가든 더봄으로 입소하든. 위탁보호처에도 관리자가 있습니다. 위탁보호라는 것은 동물을 그 시설에 그냥 가둬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의 관리자가 관리자 정신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돌봄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부소장님은 우직한 분으로 동물 돌봄을 굉장히 잘해주는 분인데, 그걸 방지했다고 하시면 그분에 대한 인격 모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물의 고통을 정당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구조건 중 10% 미만 되는 동물에 대해서 캔넬링을 하는 경우의 아이들을 그 주요 거주 시설 프라이머리 인클로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취침할 때 이용하는 거고요. 노동적인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사람하고 신뢰를 갖게 만들고 캔넬 안의 공간을 자기만의 독립된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그 아이가 용기있게 세상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동물의 고통을 정당화하다니요? 인건비 사업 증가 그리고 총회 의결 없는 조직문화 컨설팅 계약 사실 확인에 대해서, 2023년도 급여 지급 내역입니다. 보시면 하늘색이 신규 채용된 부분입니다. 우측에 보면 여러분들이 신규 채용되신 분들인데, 옆에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전부 2개월, 1개월 신규 채용입니다. 급여에 12분의 1이 들어간 겁니다. 이건 2024년도입니다. 1년 내내 조직 개편 논의를 해서 2024년도에 그것을 적용해서 HRM,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시작하겠다고 하죠. 이것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사 정보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조직 관리해야 된다. 더봄과 더숨의 하나된 일원화된 봉사자 조직하자 화합을 하자 등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걸 위해 조직 관리가 필요해서 전문가들을 채용하게 된 것이고요. 홍보팀장의 영화제팀으로 배치가 되면서 연간 사업을 진행할 때 홍보팀 강화도 필요했습니다. 전문가 영입하는 과정이었죠. 보시면 왼쪽 칼럼에 대내 협력 부분이 지금 인사 조직 관리한 부분이었고 이제 홍보 강화 이렇게 있었습니다. 오른쪽 빨간 띠는 사회화행동팀이 정규직 전환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인원들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장기근속 휴가 가신 분들도 많아서 10주년도 좀 있으셨고 그래서 전년도 500만원의 인건비가 들었는데 휴가 가서도 드려야 되잖아요. 이 연도에는 3,300만원으로 여섯배가 늘은 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 직장 괴롭힘으로 가이드스타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소란하니 홍보하지 마라는 공문을 받았고요. 회원게시판 폐지는 2021년도에 되었는데 이거는 저희가 소통 강화의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서 오프라인 소통 쪽으로 빨리 운영행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참여권을 제한한

부분은 정관에 있는 임원 선출이 저의 해임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동조합 그리고 조직개편이 같이 병행하게 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측에 보시면 제가 제안했던 조직개편 최초 제안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보호소 운영위원회 이런 전문위원을 두겠다, 그리고 회원 규정 정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조직개편 논의의 모토는 책임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대폭 위임하겠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하고 이사진이 균형과 견제를 해보겠다, 그리고 운영 행정을 내재화 해보겠다, 그래서 외부 컨설팅을 하겠다 이거였습니다. 대내협력그룹에서 2024년도에 이미 에즈원프로젝트라고 해서 하나된 카라로 보고했는데 총회 승인도 없이 하다니요. 그런 것을 안건으로 제안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그리고 원래 지금 예전 조직은 이렇게 병렬식으로 쪽 팀이 있던 조직이었죠. 가족처럼 논의하고 이러기에는 좋은데 빠르고 힘 있는 활동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권한과 위임을 할 조직 자체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 하다보니 2024년 1월 15일, 저희가 일부 임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조직 관리 전문가가 채용된 것은 2024년도 8월이예요. 갑자기 사측 프레임으로 이분법적으로 됐죠? 노사구분없이 일하던 단체에서 표적 징계, 노동 탄압 이러면서 시작이 됐어요. 2023년 12월 8일부터. 왜 그랬는지 저는 지금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 개편이 지속적인 소위 노사 이분법에 의한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을 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부분이었고요. 카라지회하고의 단체교섭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선 8인의 교섭단을 요구하였고요 사측은 저와 사무국장밖에 없었는데 사무국장은 퇴직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저 혼자 가서 앉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쪽에는 8명이 쪽 앉아 계십니다. 저는 그 지회장이 더숨 전환배치 인사권을 자꾸 요구하시는 등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발 업무는 중간에 진행되다가 교란이 일어나면서 못한 것이고요. 모든 활동이 노사 대립 구조에 매몰되어 진행되지 못한 것에 뼈저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이 반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 지금 좀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하면 제가 정관의 해임 사유 중에 하나가 총회 사업 진행하지 않았다는 건 성립이 안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 자체를 명예 훼손했다는 부분인데,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는데 누가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몰아갔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자 단체교섭을 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검찰에 송치되었다 하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호 신뢰 속에 교섭 대화가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2024년 3월 7일, 카라지회가 평화협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더니 3월 13일 임순례 감독님, 저, 카라동물병원장을 부당노동으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대응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신뢰를 자꾸 깨는 게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물 폭행과 관련해서도 이게 문제입니다. 5월 23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합의서를 채택합니다. 그리고 27일 월요일 합의서를 채택한 건 목요일인데 갑자기 그

날 동물폭행 주장 보도자료를 배포한 거예요. 담당자가 입양 활동이 너무 안되어 직급을 내려 입양 활동 복구를 위해 왔는데 근무시간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 징계를 했죠. 그랬더니 부당노동 부당징계로 (카라지회가) 지도위에 신청했는데 전부 기각이 됐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이 됐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느 직장이나 있을 수 있어요. 만약 거기서 해임의 사유가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한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공정하게 잘 처리했느냐 부분인데, 공정하게 처리했습니다. 동물 폭행과 관련해 (우측이) 진상규명이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같이 모색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여러번 공문을 보내고, 전문가 추천해 달라 했는데 안하신 부분인 거잖아요. 그리고 왼쪽에 지금 녹취록(일본) 지금까지 안내고 계시죠? 이 녹취록 지금까지도 안내고 계십니다. 2024년 5월 27일 그때 링크를 통해서 배포하고 카라를 폭행 단체로 만들었던 역사적인 녹취록(일본) 아직 제출하지 않고 계시는데 폭행소리라고 나오는 거 동물 때리는 소리 아닙니다. 또 저에게 어떤 횡령 프레임 씌웠죠? 만약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사형선고가 있다면 횡령일 거예요. 이거는 사형 선고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 이제 거기서 해임돼. 안건 설명해 주신 고현선 카라지회장이 제게 그러셨어요. 배임도 수사중이다. 탈세도 수사중이다. 아니요. (수사기관에서) 연락온 것 없어요. 지난번 국세청에서도 연락오지 않았어요. 고발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조사 대상이죠. 그러면 혐의가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마사회장이 되신 유희중 교수님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가 투명할 리가 없다. 내일 증거가 나온다.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기자회견에서 이익공동체여서 동물폭행을 은폐했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연대해서 하던 단체에서는 제 발로 그만 안두니 끌어내야 한다. 되게 무례한 발언인데 저는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이게 단체 명예를 훼손한 것일까요? 그리고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이거는 강요예요. 진실은 규명해야죠. 지금도 이거 다 무혐의되니까 똑같은 걸로 또 고발했어요. 저 이렇게 2개 받았는데 아직 조사오라고 안하는데 조사오라고 하겠죠. 가서 적극 소명할 것이고 당연히 무혐의죠. 왜냐하면 그런 사실이 없는데. 더숨 매각과 관련해서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더숨센터 부채가 14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대 24억까지 담보 대출 했었고요. 심지어 그걸로 부족해서 임원한테 차입을 했어요. 왜? 더봄센터 지어서 제대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자원을 그쪽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2021년도에 그 더숨센터 리모델링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활동가들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파악한 더숨센터의 기능도 사무공간, 다목적 공간, 휴게공간, 아름품이 있었어요. 지금 아름품 동물들은 더봄으로 가 있잖아요. 여기가 우리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이럴 일인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동물을 위한 공간 마련이 필요하냐 아니면 공간 효율이 떨어진 더숨센터 고수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입니다. 더숨 매각은 감정 평가액하고 시세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 더숨센터를 아까 말씀하신 65억에 팔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지금 그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도 물

어보는 사람도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비대위와 이사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희종 현 마사회장님 저한테 3류 조폭 악덕 기업주 그리고 동물학대 방조에 가까운 방치, 고혈을 빠는 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특히 회계 문제를 굉장히 지적하셨잖아요. 윤미향 의원 때는 뭐라했냐, 그 사람이 거래하는 단체 회계까지 어떻게 책임지냐, 명확하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걸 목표를 가지고 편향적으로 저에 대해 허위 여론을 조장하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여론을 가지고 해임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전 이사님인 박종무 수의사님도 헤이리 고양이 건으로 지속적으로 활동가 징계를 계속 말하시고 제가 저항한 거밖에 없는데 규명해야 할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활동가를 징계합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한다고 한 것 뿐입니다. 그때도 조사해서 징계할 게 있었으면 징계했을 겁니다. 활동가들이 저에 대한 명예훼손성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해 공개 사과 하셨는데 지금 또 이려고 있는데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권은정님, 제가 요청드린 거는 카라지회도 참여해 만든 정관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서 총회 안건을 설명한 것인데 그게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총회에서 객관적으로 의견을 주시는 게 가능한지 여쭙보고 복잡한 정관에 대해 사전 이해를 위해 공유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최태규 공보금자리 대표님, 왜 타 단체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으시고 저한테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루시의친구들 심사에 저 참여하지 않았고 문제 될까봐 중간에 나왔습니다. 근데 왜 동물복지국회포럼에 민원 추동하시고 그러세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동물단체 대표로서 보레에 대해 비전문적인, 비합리적인 자문(을 지회에 주셨는데) 저희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셨거든요. 앞으로는 겸손한 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전 존경하는 저희 이사님의 가족분이신데 예전에 실수로 마약 제품을 국내 반입하시다가 추방위기에 몰리셨어요. 그때 갑자기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카라 직원이라고. 저희가 그 부분을 바로 잡았거든요. 이렇게 단체를 위험에 빠뜨리신 분이 지금 카라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아냐 이렇게 막 하세요. 진실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사업 진행하고 동물들 위해 어떤 순간에도 연민으로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불처럼 강했습니다. 그거밖에는 없고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해임에 이르는 사유가 되는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진실 규명을 원합니다. 오늘 그런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5분 더 쓴 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드리고 언제든 물어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의장 박지영: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게 예정되었으나 시간 관계상 저희가 9시에 대관 시간이 종료됩니다. 일단 소명자료 잘 들으셨을 테고요. 제안 발언들도 잘 들으셨으리라는 생각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사회자께서 전자 투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10. 의결 안내

사무처장 김현지가 의결을 위한 전자투표 방식에 대해 설명하다.

11. 의결 투표 개시 선언

의장 박지영이 의결 투표 개시를 선언하다.

12. 의결 투표 종료 선언

의장 박지영이 의결 투표 종료를 선언하다.



13. 의결 발표

의장 박지영이 의결 결과를 공표하다. 본 개표 결과는 무효표 점검 뒤 보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다.

의결투표 성원 173명, 특별안건으로 2/3인 이상일 때 가결임을 설명하며 의결 결과를 공표하다.

의안 제1호에 대해서 전자투표 결과 승인 91표, 불승인 82표로 참석인원 173중 2/3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승인을 부결하다.

의안 제2호에 대해서 전자투표 결과 승인 91표, 불승인 82표로 참석인원 173중 2/3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승인을 부결하다.

의안 제3호에 대해서 전자투표 결과 승인 86표, 불승인 86표로 참석인원 172중 2/3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승인을 부결하다.

14. 의장 인사

의장 박지영이 총회 마무리를 위해 대의원에게 인사말을 전하다.

15. 폐회 선언

오후 9시 05분 경, 본 총회의 안건 논의를 모두 마치고 의장 박지영이 폐회를 선언
하다.

이후 본 회의의 경과와 의사 확인을 명확히 하고자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선임된
회원이 서명날인하다.



2026년 3월 12일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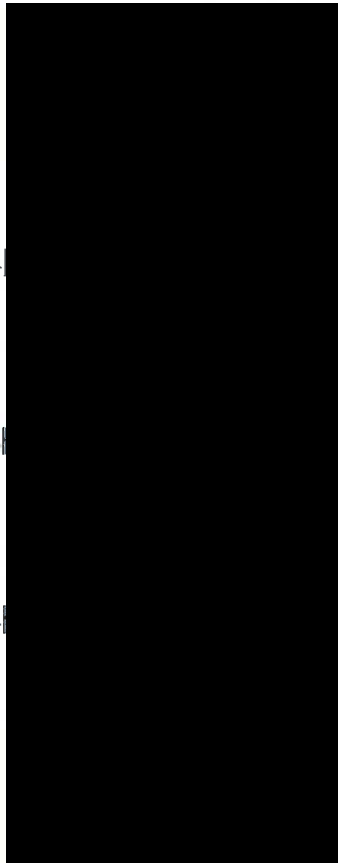
전진경 대표이사

김정반 이사

이은애 이사

박지영 이사

서정주 이사



박승호 이사 (인)

김광수 이사 (인)

최호윤 감사 (인)



등부 2026년 제394호

인 증

위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의 2026년 3월 12일자 임시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본 공증인은 위 임시총회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였고, 또한 (의장 대표이사 겸 회원) 전진경과 (이사 겸 회원)김정빈과 (이사 겸 회원)이은애와, (이사 겸 회원)박지영과 (이사 겸 회원)서정주 등의 각 대리인 이지영은 본 공증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_____



본 공증인은 위 검사 내용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_____

2026년 3월 25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사무소명칭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한양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재지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306호 (서초동, 정곡빌딩서관)

공증담당변호사

정 서 연



아 래

- | | |
|----------------------|----------------------|
| 1. 진술서 _____ | 2. 회원명부 _____ |
|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_____ | 4. 정관 _____ |
| 5. 주민등록증 _____ | 6.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_____ |